

복음소식과 5가지 확신

요한일서 5:11-13

정윤돈 목사님

서론

5월에 진행된 전도캠프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복음소식을 암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에 다 캠프에 참석했는데, 현장에서 영접한 카드를 보니까, 대부분이 복음소식을 암송했던 분들이었다. 노인정 현장에 가서 쉽게 또 하는 것이다.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여셨다. 지금은 시작이다. 목사님들보다 더 잘 하는 것 같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여러분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램넛들도 많이 외워라. 복음소식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신학자 최덕성 교수님이 특강을 하러 오셔서 램넛트신학교에서 하신 이야기가, 우리 복음 메시지 안에 조직신학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분이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했다. 지금도 이분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도와주고 계신다.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45분짜리 말씀을 암송했다. 그랬더니 할 사람이 없었다. (웃음) 사랑교회 장로님은 그것을 하셨더라. 대단하다. 그 후로는 없다. 그래서 줄여서 17분으로 요약했다. 그런데 펜을 뽑아서 그리고 하다 보니 불편한 것이다. 게다가 17분도 길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단히 바꾸어서 10분짜리로 만들었다. 또 7분, 5분, 1분 복음소식도 다 만들어놓았다. 현장에 따라서 1분에 해야 할 때도 있고, 7분에 해야 할 때도 있다. 짧은 것은 내용이 많이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듣는 분들은 17분짜리 복음소식을 외워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복음소식 안에 있는 요절이 있다. 30에서 50개 정도 되는 구절이다. 이것을 다 외워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같은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성경구절을 다 외우는 것이다. 그러려면 300에서 500개의 구절을 외워야 한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성경을 찾아서 답을 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단들과 대화를 하다가 막히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1. 확신이 필요한 이유

지금 이 시간에는 복음메시지를 이어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구원의 길 메시지 속에 5가지 확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 네비게이트도 선교회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류목사님이 초창기에 전도운동을 위해서 받아들였다. 그 원조도 사실 성경이니까. 복음을 이해하신 분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확신이 다섯 가지 확신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응답을 누리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안타제조기로 불린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다. 타석에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나가느냐 했더니, '반드시 안타를 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안타를 칠 것인가 그림을 그리고 나간다고 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

(1) 신앙생활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불신앙이다. 삶

속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확신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신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확신은 곧 믿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의 반대, 즉 불신앙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다. 지금도 이 세상의 문제는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며, 나의 생각과 기준, 판단과 환경대로 한다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면 되는데,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한다.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오히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다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기도만 한다고 되나?' 그게 불신앙이다. 해 봤는가. 안 해봤지 않나. 엘리야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약5:13-18).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다. 현당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된다. 우리 배승찬 집사님, 이명 집사님, 장경숙 집사님 같은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목사 100명보다 바꿀 수 없다. 우리 성도가 다 그렇다. 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찬양을 하면 목사들은 타락해서 시큰둥한데 램넛트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다. 우리 램넛트, 평신도들이 목사, 선교사, 제사장들까지 개혁할 수 있는 주역이 되시기 바란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우리가 이미 그 응답을 받았다.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2) 세상 사람들의 확신의 기준은 자신의 용기, 신념, 자기가 예측하는 미래에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이다. 1970년대에는 구호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다. 신아제한이 시대의 흐름이었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에 갈 때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을 면제시켜 줄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아닌가.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이 부여주시게 되어 있다. 새로운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복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 준비가 될 것이다. 복음 중심, 전도 선교 중심이 아직도 부족하다. 우리 참사랑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이다. 미국에 AT&T라는 통신사가 있다. 큰 돈을 주고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컨설팅사에 미래 예측을 부탁했다. 2000년의 휴대폰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두고 1970년대에 예측했는데 2000년에 사용자가 100만 명일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휴대폰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 2000년이 되었을 때의 휴대폰 사용자는 7억 명이었던 것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 우리의 확신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이다.

2. 그리스도인의 다섯 가지 확신

(1)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할 영원한 확신이 몇 가지 있다.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다. 요일5:11-13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 기준이 나의 윤리, 도덕이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의 이름,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 바란다.

(2) 두 번째 가져야 할 확신은 인도의 확신이다. 요14:26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했다. 복음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단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성령인도를 바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잠3:5-6에, 첫째, “마음을 다하여,” 둘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라.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라. 셋째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란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순종 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란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겸손하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불신자가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인도를 받으시기 바란다.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교만하고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너무 기다려도 안 되면 하나님은 재앙과 징계를 주신다. 말씀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란다.

(3) 세 번째 확신은 승리의 확신이다. 고전10:13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다. 믿으시기 바란다. 어려움이 있는가? 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문제를 주시는 것임을 알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4) 넷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이다.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 한 번이라도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영적 서밋이 되는 체험을 한 번만이라도 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다. 그런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한다. 램33:2-3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시기 바란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란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문을 여셨음을 자랑하시기 바란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돌리시기 바란다. 방법은 무엇인가? 요16:24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받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축복하셨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영육간의 큰 응답을 누렸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가 응답을 받고, 주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란다. (5)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죄의 확신이다. 요일1:9에,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죄는 해결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범죄를 자주 저지른다. 머리로 감고 세수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 외로 여자들이 머리를 안 감더라. (웃음) 여러분, 여러분이 세수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해도 인간은 인간이다. 신분은 인간이다. 그러나 더러운 인간이다. 정상적인 삶은 살 수 없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정시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회개, 오늘의 반성의 시간이 없으면 영육간에 더러워진다. 영적인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못 한다. 그래서 매일같이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어떤 목사님은 구원의 길을 매일 그려서 카톡에 올린다. 여러분도 매일 하시기 바란다. 강태홍 목사님처럼 3천 번 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전도자가 될 것이다. 반복해야 한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반복하는 만큼 다르다. 응답도 다르다. 야구선수가 그냥 휘둘러서는 메이저 리그에 갈 수 없다. 이 복음을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에게 전하면 응답이 다르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가 복음에 중독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복음소식 반복하다가 복음에 중독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선한 일에 중독되어야 한다. 램넉트가 전도에, 전문성에 중독되기를 바란다. 이것 하다가 행복해야 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 복음 소식과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1) 먼저, 87지 미션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팀이 일어난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개인전도가 이루어지면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지교회가 세워지고 절대적인 제자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다.

(2) 둘째로,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일심, 전심, 지속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그것이 갈천당일오이각이다. (웃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 락방이다. 천명, 소명, 사명이다. 당연, 필연, 절대다. 이것을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 24시간 우리가 전문성을 생각하고 있으면 25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영원히 그것이 남게 된다. 이것이 안 되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변화되어서 가정, 직장, 학교에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캠프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생명 살리기 위하여 증인되는 축복 중심을 감사합니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속으로,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이 있습니다. 평생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가치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 복음을 누리는 삶,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